

화학산업 거물 한국방문 러시

산자부, 월드컵 맞아 세계 비즈니스 리더 50여명 초청

2002 Korea-Japan 월드컵을 계기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리더 50여명이 산업자원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새롭게 변모된 한국의 투자환경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투자기회를 접할 예정이다.

주요 한국방문 CEO로는 알리안츠 회장(독일), BMW 회장(독일), 로얄 필립스 회장(네덜란드), 마쓰시타 부 회장(일본), 소프트뱅크 CEO(일본), Akzo Nobel CFO(네덜란드), 방시 회장(프랑스), Vivendi Water CEO(프랑스), 트락터벨 CEO(벨기에), 페어차일드 회장(미국), Dow Corning 회장(미국) 등이다.

월드컵 기간 한국방문 주요 화학산업 인사

회사명 (업종)	방문예정 인사 (직책)	Fortune (Forbes)	비 고
Dow Corning (화학)	Mr. Gary E. Anderson (Chairman & CEO) Mr. Rich Hoover (President/ Dow Corning Asia)	-	◦ 전세계 40여개의 공장 및 서비스센터 보유
Chevron-Texaco (석유정제)	Mr. Glenn F. Tilton (Vice Chairman)	60	◦ 세계4위, 미국2위 석유 회사 ◦ LG-Caltex의 지분 50% 소유
ExxonMobil (석유정제)	Mr. Ron Billings (Vice President / Gas marketing company)	1	◦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 Gas Marketing은 세계 1위의 천연가스 회사로 Exxon의 주력기업의 하나
Mirant (에너지)	Mr. Frederick D. Kuester (Senior Vice President & Asia-Pacific CEO)	- (175)	◦ 북미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 회사이며, 전세계 22,000MW의 전력 생산능력 보유
Air Product (화학)	Mr. Mark L. Bye (CEO/ Air Product Asia)	- (283)	◦ 잠재투자자
AKZO NOBEL (화학)	Mr. Fritz W. Froehlich (CFO & Vice Chairman)	402	◦ 세계 제1위 화학제품 제조기업
Vivendi Water (환경)	Mr. Olivier Barbaroux (CEO)	-	◦ Vivendi Universal의 자회사 ◦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세계 최고의 기술 보유
Tractebel (에너지)	Mr. Dirk Beeuwsaert (CEO / Tractebel Electricity & Gas Int'l)	-	◦ 세계5위의 민간 전력공급 업체로 현재 100여개국에서 활동
Odfjell (물류)	Mr. Jan Hammer (Senior Vice President)	-	◦ 잠재투자자 ◦ 세계 해상운송 점유율 25%
Royal Dutch Shell (에너지)	Mr. Tan Ek Kia (Chairman for Roral Dutch/ Shell Group in North East Asia)	6	◦ 세계 3대 석유회사 중 하나 ◦ 한전 및 가스공사 민영화에 관심
BP Plc. (에너지)	Dr. Gary W. Dirks (Group Vice President)	7	◦ 세계 3대 석유회사 중 하나
Toray (화학)	Dr. Katsunosuke Maeda (Chairman) Mr. Sadayuki Sakakibara (Executive Vice President)	-	◦ 잠재투자자 ◦ 일본 1위의 섬유기업 ◦ 국내 합작법인 도레이세한 운영 중

또 수파차이 파니츠팍디 WTO 차기 사무총장, 로버트 먼델 콜롬비아대 교수(199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등 국제기구 및 세계적 석학들도 월드컵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장문 인사들은 산업자원부가 5월30일 COEX 아셈홀에서 주최하는 「World Business Leaders Round Table 2002」에 참석해 투자전략 및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투자요건 등을 논의하게 된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의 “한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기회”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 이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산자부는 다국적기업 CEO들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 전략 및 경험, 동북아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선행조건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논의 결과를 수렴해 향후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 및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전략 등을 기업가의 입장에서 재정립할 계획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5/ 16 >